

강진 마량항 항만공사 쓰레기 몸살

콘크리트·우레탄 가루 여과 안되고 유입 폐어구도 수거 않고 방치...해양오염 심각

강진군 마량면 신마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형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로 발생한 부산물과 각종 쓰레기 등 오·폐물이 인근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29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신마항 건설공사 현장인 마량면 물양장 부두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전남도로부터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구조물을 제작해 500여m 떨어진 공사 현장까지 선박편으로 운반하는 것이다.

물양장은 소형 선박 간이접안시설과 작업장 등 주로 어민들이 공동작

업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며, 전남도 소유라는 이유로 작업장이 됐다. 그러나 이곳은 인공어초제작 등 주민들의 작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최근 오·폐물로 인해 수질 오염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찾은 물양장 현장은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폭 6m 높이 2.5m 무게 60t의 대형 구조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콘크리트가루가 쌓여 있었으며(사진 위), 여과시설 없이 앞바다로 스며들고 있었다.

또 지난 2006년 '마량미항조성사업'으로 수 십여억 원을 들여 시공된



상·중·하 방파제 3곳의 노면에 페타이어 또는 EPDM(합성고무)의 자재로 시공된 우레탄 탄성 포장기 부식되면서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우레탄으로 포장된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부서진 까만 고무 알갱이들이 한 움큼씩 잡힐 정도였다.(사진 아래)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011년 우레탄 포장을 일부 보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양장 한쪽에는 각종 폐 어구가 널브러져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해안가 수거작업과 폐선박 등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민 정모(55)씨는 "마량항에 대한 공사가 있을 때마다 지역 환경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자연 환경을 고려한 공사 방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1@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축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명성을 얻고 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서 최근 열린 '제3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축제'에 2만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찾아 가로수 길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영암군 구림한옥마을 자전거 투어

31일~내달 6일 한옥건축박람회 기간 개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자전거로 떠나는 한옥마을 돌담길 여행이 시작된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온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6일간 개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의 특별연계 프로그램으로 '구림 한옥마을 자전거 투어'를 진행한다.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구림 한옥마을의 돌담길을 자전거로 돌아보는 '자전거투어'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중학생 이상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자전거 투어 경로는 ▲1 코스 대동계사~도기박물관~돌담길~국사암~죽정서원~하미술관~회사정~박람회장 도착 ▲2 코스 주계변천사~죽정마을 돌담길~하미술관~도기박물관~회사정~대동계사~박람회장 도착 등으로, 약 4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오랜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구림 한옥마을은 다양한 볼거리와 유적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전거 투어를 통해 유일한 역사 체험학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산포들 농산물 큰잔치

나주산포농협 내달 1일

나주산포농협(조합장 박종환)이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농협 조합원과 지역민들을 위한 한마을축제와 산포들 농산물 큰잔치 행사를 다음달 1일 산포초등학교에서 개최한다.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산포들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전시, 홍보하는 장이다. 이날 행사장을 찾는 주민을 위해 유명 인기수가 초청 공연 등도 마련됐다.

박종환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불부터 열심히 키워온 자식 같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담양중 가운데리 리더십 캠프

학생회 임원 등 30명 참여 자치 역량 길러

담양중학교가 지난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학생회 임원과 2학년 인턴부장 30명을 대상으로 보성유스호스텔 및 구례 일원에서 리더십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리더십을 배워 학생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 아래 마련됐다.

이번 리더십 캠프에는 담양중 학생회 '가온누리(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순수우리말)'의 2013학년 학생회 임원만이

아니라 내년 학생회를 이끌 2학년 인턴부장 10명도 함께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창의성'을 주제로 한 전남도교육청 신자경 장학사의 강의에 이어 성공하는 학교축제 운영 방안, 초등학교 6학년 대상 학교 홍보 전략 등에 대한 토의 및 발표가 이어졌다.

김성희 담양중 교장은 "학생회 임원들이 리더십 캠프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회가 중심이 돼 학교 공동체간 건전한 소통 문화를 만



지난 25·26일 열린 담양중 리더십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캠프를 마친 뒤 교사, 강사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중은 지난 2012년부터 학생자치법정을 실시

해왔으며, 올해 올부즈맨제와 인턴부장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전북



북한 갈 통일쌀 베풀기

2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논에서 6.15 남북위원회 전북본부 회원들이 통일 쌀 베풀기 행사를 하고 있다. 본부는 통일쌀 성금으로 마련된 1000여의 통일쌀을 올해 말까지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남스

전북지역 지방의료원 누적적자 916억원

전북지역 지방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9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호(새누리당, 대전 대덕구) 의원은 29일 열린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916억원에 달한다"며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해묵은 과제임에도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부채는 각각 426억원, 251억원이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지원액은 각각 97억원, 33억원이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적자 누적 원인은 수익 창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전주·군산=박승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46개 기업 참여 200여명 채용

전북도·전주시 취업박람회...구직자 2000여명 몰려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교통노동자청 등이 공동주최하는 하반기 최대 규모의 취업박람회가 29일 전주대 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주)솔라파코 코리아 등 46개의 기업이 직접 참여, 200여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2000여명의 구직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권 대학 재학생·졸업생, 실업자, 재취업자, 여성, 노인, 특성화고 학생 등 다양한 구직자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업종별·직종별 맞춤형 취업박람회로 구성해 자동차·기계 산업 및 탄소산업, 여성친화기업, 병역특례군, 중장년·고령 전문

채용관으로 다양하게 운영, 기업과 참여구직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NH농협전북본부, 전북은행, 한화생명, 동부자동차손해사정(주) 등 금융권 채용설명회도 함께 열려 지역 대학 졸업자의 참가도 크게 늘었다.

전문채용관 뿐만 아니라 취업컨설팅관, 부대행사관 등이 별도로 설치됐으며,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탄소산업 홍보관, 이력서용 무료 사진촬영관, 온라인 입사지원을 위한 인터넷 활용관 등도 인기를 끌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잡코리아 나·꿈·소(나의 꿈을 소리치다) 토크 콘

서트에는 대한민국 1호 소통테이너 오종철씨와 총각네 야채가게의 신화 이영석 대표가 출연해 '다름의 가치'와 '젊음과 열정으로 해결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채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오프라인에는 46개 기업, 온라인에 150여개 기업이 각각 참가했다. 온라인 채용은 다음달 24일까지 계속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기업체의 인력난과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성화고, 대학생, 여성, 노인 등 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더욱 내실 있는 취업 박람회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승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금융사랑방 버스' 전주·군산·익산시 금융서비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랑방 버스'가 전주, 군산, 익산에서 금융서비스를 한다.

금융사랑방 버스는 생업에 바쁜 시민을 위해 버스 내부를 상담실로 고쳐 금융민원, 금융지원, 금융사기 피해구제 등을 일대일로 상담해주는 이동 차량이다. 이 버스는 31일 오전 10

시~오후 5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공 4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상담 서비스를 한다.

또 26일에는 군산 미장 휴먼시아 관리사무소와 군산 공설시장, 27일에는 익산 장신 휴먼시아 2단지 관리사무소를 찾는다.

/전주·군산=박승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척문리 교차로 이달 착공 2015년 준공

구례와 전주를 연결하는 국도 19호선과 남원 동부권지역으로 연결되는 시도 15호선이 교차하는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에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교차로를 설치된다. 그동안 이백면 척문리에 위치한 국도와 시도의 교차구간에 긴·출입로가 없어 이용객 및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국도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수 차례 방문, 전액 국비사업인 '국도 병목지점(교차로) 5단계(2013~2017) 개량사업'에 이를 반영시켰다. 이미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착공, 2015년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고창군 예전리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개장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완공돼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

군은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부지 1175㎡에 건물 463㎡ 규모의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을 조성했다. 공용 게이트볼장은 지난 2002년 비가림하우스 형태의 지붕 및 마사토 바닥

로 지어져 사용하다가 지난해 태풍 덴빈으로 반파됐었다.

준공식 이후에는 상하·해리·무장·심원·공음 5개 면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준공을 축하했다.

/고창=음향명기자 cy0370@

순창군 4대 종단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업무협약

순창군은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4대 종단과 함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생명사랑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오 부군수를 비롯한 기독교 대표 서양원 목사, 불교계 법연 주지, 원불교 고세천 교

무, 천주교 야고보 신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4대 종단은 종교의례(예배, 법회, 미사 등) 시설과, 설법 안에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에 대한 관심, 자살예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